

S#4. 예서의 집/아침/안

알람이 울리자 눈을 뜨는 예서.

핸드폰 배경화면에 뜬 '기말 D-12'를 보고는 오늘은 꼭 학교에 가야겠다고 마음먹는다.

예서: (V.O)오늘은 꼭 가야돼.

아침식사를 하는 예서.

다리를 떨며 냇이 나간 채 샌드위치를 먹는다.

그러다 먹던 샌드위치를 내려놓으며 조금이라도 치면 울 것 처럼 울먹이는 예서.

이를 본 예서 모는 식탁에 앉아 예서를 걱정한다.

예서 모: 예서야. 흥예서, 괜찮아?

결국 눈물이 터지고 만 예서.

예서: “ 엄마… …안해.”

예서 모: 뭐라고?

예서: …

예서 모: (긴 한숨) 아유 심란해… 예서야, 뭐라고?

예서“ 미안해… 내가 이래서 미안해…

예서 모: (떨리는 목소리로) 뭐가~ 뭐가 미안해~ 엄마는 예서 너무 예쁘기만 한데~ 공부도 알아서 잘 하고. 성격도 좋고. 응? 무슨 일 있어?

예서: 나도…모르겠어… 갑자기 혼자 있으면…너무…외롭…고… 아무 이유…없이…울어.

예서 모: (눈물을 삼키며 예서를 안아준다.) 예서야, 괜찮아. 괜찮아.

다 잘 될거야.

잘 될거야.

서로의 어깨에 눈물을 적시는 예서, 예서 모.